

# 국민의당, 원내교섭단체 구성되나

안철수 의원이 이끄는 국민의당의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필적 관심이다.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선 20명을 영입해야 되지만 현재 3석이 모자란 상황이다. 원내교섭단체 구성 시한은 오는 15일 까이다. 만약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면 국 조보조금 85여여원은 받지 못하게 된다. 이번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난항을 겪는 것은 전복 의원의 영입이 가장 컸다. 당초 유성엽 의원의 탈당이후 전복 의원의 연쇄 탈당이 예상됐지만 9명의 의원이 잔류를 선택, 예측에 실패했다.

기준치 20명 영입해야하나 현재 3석이 모자란 상황

당 지도부 계속 물밑접촉 새누리 출신 인사영입도

도내 정가 한 관계자는 "탈당이 미풍에 그쳐 다소 의외였다. 하지만 물결이 20% 결과에 따라 아직 탈당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전에 물결이 결과를 할지 여부가 관건이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협상 테이블에 앉아 주요 법안이나 정국 현안을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총선을 앞두고 바람몰이뿐만 아니라 당의 위상이 달라지게 되는 셈이다. 현재 국민의당 지도층이 계속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정배 의원과 가까운 무소속 최재천 의원과 김한길계로 분류되는 노용래, 민병두 의원 등에 대해서 실무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새누리당 출신 인사 영입에

도 힘쓰고 있다. 지난 2일 18대 의원을 지낸 김성식 전 의원을 영입했다. 18대 국회 당시 새누리당 소장파였던 김 전 의원은 대선을 앞둔 2011년 탈당,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으며 대권에 도전하는 안철수 의원에게 힘을 보탰었다. 정가 한 관계자는 "원내교섭이 잠시 주춤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속단할 수 없다. 어찌보면 원내교섭 구성이 이번 총선 경쟁력의 첫 시험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더민주 최주만 예비후보, 도의원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최주만 예비후보(사진)는 3일 전주완산갑 도의원 제2선거구(서학동 평화동) 출마를 선언했다. 최 예비후보는 "전주가 행복해지고 전북이 강해질 수 있도록 전주시의회의원 7대, 8대 의정 활동의 경험을 살려 서민과 이 세상 사회적 약자편에 서서 26시간 대기하는 도의원으로 일하고 싶다"고 밝혔다. 최 예비후보는 이어 "오롯이 한자리에 서서 곳곳이 민주당을 지켜왔고 50여년 이 지역을 지켜온 토박이로서 지역발전이 누가 필요한 사람인지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 저 총선 출마합니다

더민주 신영대 예비후보, 군산 출마 공식화

노무현 대통령 재임기간 중 청와대 행정관 등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사진) 예비후보가 3일 20대 총선에서 전북 군산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신영대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군산시 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4년 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군산시민들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며 "군산의 발전과 정권교체라는 중차대한 사명감을 안고 출마표를 던지게 됐다"고 출마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요즘 군산은 공장에 불이 꺼지고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으며, 지역상권은 붕괴직전에 있는 등 미래에 대한 걱정이 크다"며 "군산형 교육혁신지구 및 마을교육공동체 추진과 관광산업+환단 친환경 수산업을 투트랙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새만큼 한·중경협단지 조기구축 등 군산의 비전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시민들의 회생과 헌신 군산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만든 80년의 정통성을 지닌 정당이며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을 당선시켜 민주당부 10년을 탄생시킨 자랑스런 정당"이라며 "앞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저에게 힘을 모아준다면 정권교체와 군산발전의 두 과제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호소했다. 또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지역발전과 정치발전을 위한 약속을 책임있게 실천해 나가겠다"며 "군산에 생활정치가 굳건히 뿌리 내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장단을 실현해 정권교체하는 강하고 유능한 야당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지를 당부했다. 신 예비후보는 군산중앙초교와, 군산동중, 군산제일고, 전북대를 졸업했으며, 전북대학교 총학생회장과 전대협 부의장을 지낸 운동권 출신으로 국회의원 보좌관,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정책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군산=문정근 기자

도, 청년 농업인 경영자금 지원

앞으로 도내 40세 미만의 청년 취업 및 창업 농업인에게 무이자 농업경영자금이 지원된다. 전북도가 '전북도 농업수익발전기금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 11조를 수정해 농업수익발전기금으로 젊은 창농(創農)을 유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번 지원은 전북도가 양성된 도의원(사진)이 지난 제326회 정례회 당시 5분 발언을 통해 제안한 청년 취농과 창농 대책 마련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이뤄졌다. 당시 양 의원은 도내 20~39세 여성인구가 50%이하로 감소하는 시점이 지방소멸 시기라는 일본 마쓰다보고서의 연구결과를 적용, 장수 등 일부 지자체가 소멸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청년농업인의 귀농귀촌, 이른바 청년 취농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었다. 특히 양 의원은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은 전체의 1%에 그치고 있고 귀농귀촌자도 50대 이상이 56.5%를 웃돌고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광영 기자



세상을 바꾸기 위한 분노의 주먹 '불끈'

## "이젠 전북의 희망을 일궈야 할 때"

더민주 김성주 의원, 전주 덕진 출마 선언  
기금분부 이전·탄소산업 육성 등 비전 제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3일 제20대 총선 출마선언과 함께 전주 덕진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김 의원은 이날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의 미래를 책임지는 일꾼이 되겠다"라며 "전북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후된 곳이 되어버린 점에 대해 과거 지도자들의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고, 이제는 전북의 희망을 일궈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복 이전을 통한 500억원을 운용하는 국제금융도시의 꿈 그리고 탄소산업육성법(김성주 의원 발의) 제정과 탄소산업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 희망을 키워야 한다며 출마의 각오를 밝혔다. 김 의원은 "특권자배제에 막을 내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선거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전북 보건복지, 종교계, 예술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 /신광영 기자

정의당 호남선대본부 출범

정의당은 3일 호남지역선거대책본부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했다. 정의당 호남지역선거대책본부는 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득권 정치 낡은 정치 등을 배제하고 호남 정치의 혁신을 위해 정의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생이 곧 보드. 제대로 된 야당, 정책야당, 선명야당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20대 총선에서 호남정치의 또 다른 기둥권을 해체하고 야권을 혁신하며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전주, 김제, 군산에 각각 후보를 내세운다는 계획이며 정당 득표율 15%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신광영 기자

13일까지 국외부재자신고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2월 13일까지 자신의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 거주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국외부재자신고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한 사람 중 사전투표(간 개시일(4월 8일) 전에 출국해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으로 외국에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국외 여행자, 유학생, 상사, 주재원 등이 대상이다. 국외부재자신고인 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에 모두 참여할 수 있지만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은 비례대표선거만 참여할 수 있다. 국외부재자신고는 서면이나 전자우편, 인터넷(중앙선관위 누리집, http://ova.nec.go.kr)을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재외투표는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6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관 등에 설치돼 있는 재외투표소를 직접 방문해 할 수 있다. /신광영 기자

국민의당, 공식 출범 후 합류 요청... 무소속 출마 배제 못해



제 20대 총선을 통해 정계 복귀를 준비 중인 정동영 전 의원(사진)이 출마에 대한 입장을 설 연휴 이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민의당이 공식 출범한 후 정 전 의원의 합류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 전 의원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정동영 전 의원의 측근에 따르면 정계 복귀 여부를 설 연휴 전에 밝힌 예정이 있지만 더민주 입당 제안 음해 등 복잡한 정치적인 문제로 입장 발표가 미뤄졌다 고 말했다. 여기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최근 순창에 머물고 있는 정동영 전 의원에 대해 핵심 관계자를 보내 함께 일하자며 당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 전 의원의 고민이 더욱 깊어졌다.

지난달 31일 김관영·유성엽 의원은 순창에 있는 정 전 의원은 찾아 국민의당 합류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한길 상임 선대위원장도 설 연휴에 정 전 의원을 만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 전 의원을 영입하기 위한 국민의당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 전 의원은 설 연휴 서울로 상경할 것으로 알려져 김한길 선대위원장과 만남이 이뤄질 수도 있다. 국민의당이 정 전 의원을 영입하려는 큰 이유는 전복 정동영, 광주·전남 전정배를 앞세워 호남 선거를 치르겠다는 복안이다. 현재 국민의당 전복 예비후보들은 더민주 후보와 경쟁에서 밀린다는 판단. 이에 정 전 의원의 국민의당 합류 후 전주 덕진구 출마로 더민주의 기세를 제압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정 전 의원이 국민의당 합류를 거절할 경우 무소속 출마도 배제할 수 없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09년 4월에 재선거

한명규 전 정부부지사, 완산을 출마 선언

국민의당 한명규 전 정부부지사(사진)가 제20대 총선에서 전주 완산을 출마를 선언했다. 한 전 부지사는 3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를 회개하고 새 시대를 열어 갈 정치세력의 교체가 절실하다"면서 "전북이 정치개혁 교체의 진원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부지사는 "제법과 중소기업의 격차, 부유층과 시민의 격차, 특정 지역에 대한 예산과 인사에 대한 차별 등으로 국민 평등권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특히 정부 예산 배정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편성 시차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 전 부지사는 정음 출신으로 전주교과와 전북대를 나왔다. 매일경제신문 편집국장을 지냈고 현재 라오스에 기반을 둔 코리아그룹의 부회장을 맡고 있다. /신광영 기자

이병학 전 부안군수, 출마 공식화

국민의당 부안 이병학 전 부안군수(사진)가 3일 제20대 4.13총선 부안지역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병학 전 부안군수는 이날 부안읍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민생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버린 새누리당도, 지역 기득권의 산골로 전락해 아무 일도 해낼 수 없는 더불어민주당도 희망을 줄 수 없다"며 "지금의 정치 현실을 생각할 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 전 부안군수는 "새로운 대안이 될 국민의당에서 저 이병학이 부안의 미래를 위해 다시 뛰며 부안의 미래를 새롭게 열겠다는 각오로 출마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다면 "부안과 김제는 농업을 바탕으로 한 농도여서 무분별한 수입개방으로 파헤쳐진 농업을 위해 친 환경 고품질 특화된 품목생산이 가능하도록 농업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병학 국민의당 제20대 총선 예비후보는 제5대, 7대 전북도의원, 초대 부안군의회 의원, 부안군수 등을 역임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